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7년 4월 5일 · 제 401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김은수 실장,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기회 포착 필요
2. ABB, 세계적인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B&R 인수
3. 아마존, 중동의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수
4. CMA CGM, PSA와 싱가포르에 합작투자한 2단계 터미널 개장

| 물류시장동향 |

1. 2020년 목표 중국 수도권 내 주요 도시 택배 당일 도착 서비스 “최후 1km”(last kilometer)건설
2. UPS, 중국-유럽 간 철도서비스 확장 추진

| 공지사항 |

1.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2. 글로벌 물류/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3. 4차 산업혁명과 물류의 융·복합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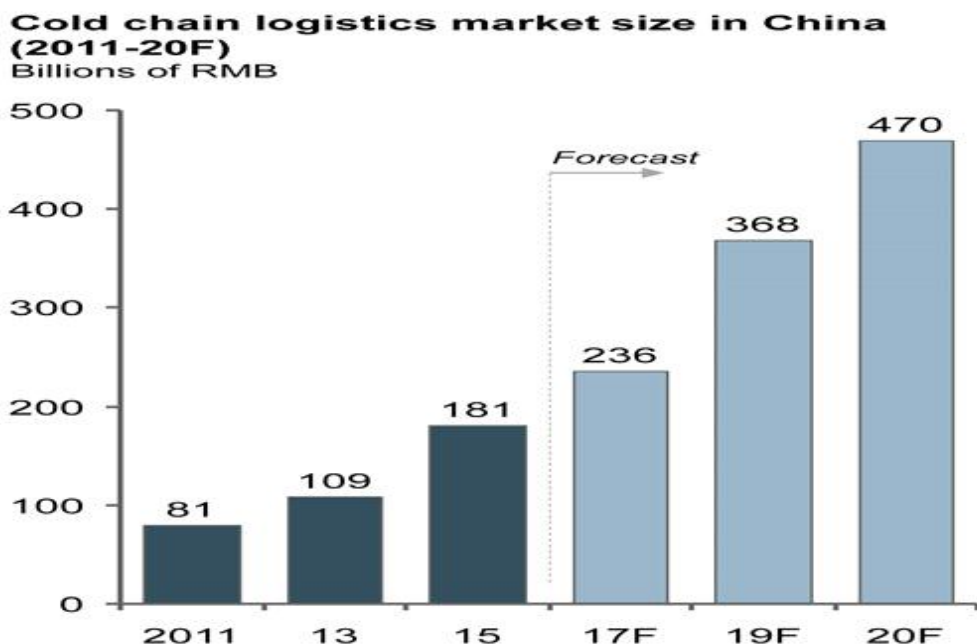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사업동향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기회 포착 필요

- 중국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 및 가계 수입 증가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은 안전, 건강,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콜드체인 물류는 엄격한 온도, 습도, 기타 환경적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신선과일, 채소, 축산식품, 수산식품, 화훼류와 같은 신선제품(perishable products), 약품, 시약, 백신, 생물학 제품과 같은 의약품(medical products)을 공급하는 것임
-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약 20% 정도 성장했고, 2020년에는 4,700억 RMB(약 7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콜드체인 물류 시장은 2011년 810억 RMB(약 13조원)에서 2015년 1,810억 RMB(약 29조 원)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2.3% 성장했음
 - 신선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콜드체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L.E.K. 컨설팅사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020년 4,700억 RMB까지 성장할 것이며, 그 중 수송이 40%, 냉장보관이 30%, 기타 서비스가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 시장 규모



Source: Zhiyan Research, CICC, iResearch, L.E.K. research and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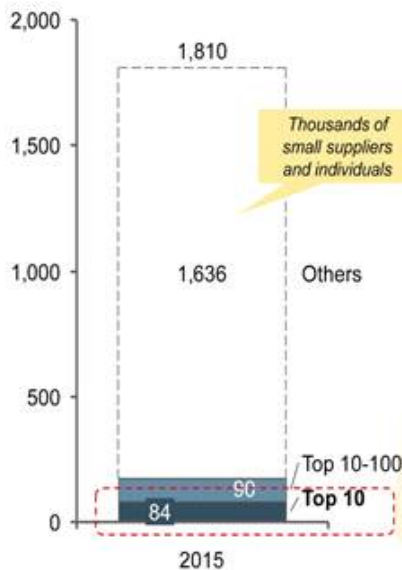
자료 : www.chinabusinessreview.com



- 중국 콜드체인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콜드체인 물류는 유아기 수준이며, 참여 물류기업도 매우 영세한 편임
 - 중국 콜드체인물류위원회(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and Purchasing Cold Chain Logistics Committee)에 따르면 상위 100개사의 콜드체인 매출이 전체 시장의 10% 이하 수준이라고 밝힘
 - 전체 콜드체인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10위 물류기업 매출이 4.6%, 상위 11~100위 물류기업 매출이 5.0%를 차지하는 등 상위 물류업체도 기업규모가 크지 않음

중국 콜드체인 시장의 상위 100위 물류기업 시장점유율

Cold chain logistics company revenues in China (2015)
RMB billions



Top 10 cold chain logistics companies in China

Company	Owner(s)	Core business
Rokin Logistics	CJ Korea Express	Refrigerated ground transport
Shuanghui Logistics	Shuanghui Group	Refrigerated ground transport
Xianyi Supply Chain	Xianyi Holding	Integrated cold chain logistics solution
Speed Fresh Logistics	Bright Dairy & Food Group	Refrigerated ground transport and warehousing
ZM Logistics	Cathay Capital, France China Foundation, Talent Capital	Refrigerated ground transport
SF Express	Mingde Holding (owned by Wang Wei)	Express mail and parcel service
Havi	N/A	Specialty food cold chain logistics provider
Zhongrong Logistics	Xianyi Supply Chain	Refrigerated ground transport and warehousing
DCH Logistics	DCH Holdings	Specialty food cold chain logistics provider
China Merchants Americold	China Merchants Port, Americold	Refrigerated ground transport and warehousing

Source: China Cold Chain Logistics Committee, Company websites, China Venture

자료 : www.chinabusinessre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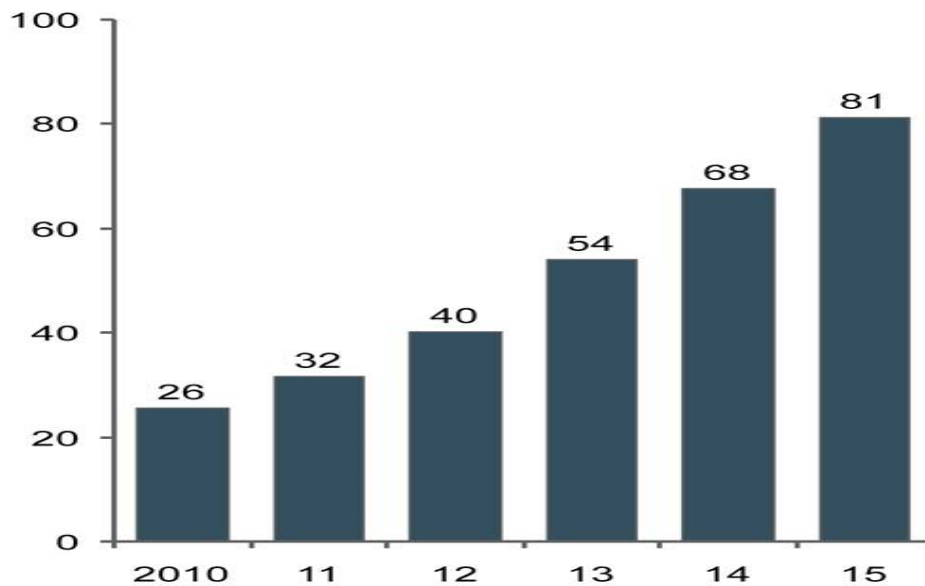
- 중국의 콜드체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콜드체인 물류의 단절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물류센터, 육상운송, 항공운송, 공항, 배송 및 기타 서비스의 관할영역이 분할되어 있어 물류 통합 관리(end-to-end process control)가 어려움
 - 또한 중국은 온도 모니터링 기술, 정보시스템, 기타 기술 서비스가 성숙되어 있지 않음
 - 그 결과 중국의 신선제품 손실율(rate of cargo damage)이 선진국 수준(5~10%)에 비해 매우 높은 20~30%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최근 육상 운송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냉동트럭 보유 수는 2010년 대비 3배 증가함
 - 냉동 트럭은 2010년 2만6천대에서 2015년 8만1천대까지 3배 증가함
 - 그러나 중국의 냉동 트럭 공급자 시장도 영세기업들로 세분화되어 있어 Zhenjiang Kangfei Auto사와 CLW Special Auto사를 포함한 상위 10위 공급자들도 전체 시장의 26% 만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의 냉동트럭 보유수

Refrigerated truck car parc in China (2010-15)
Thousands of vehicles



Source: China Special Vehicle, L.E.K. analysis

자료 : www.chinabusinessreview.com

자료 : www.foodlogistics.com, 2017.3.17 / www.chinabusinessreview.com, 2017.3.13.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ABB, 세계적인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B&R 인수

- 항만장비 자동화를 비롯한 세계적인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솔루션 기업인 ABB가 또 다른 자동화 장비 솔루션 회사인 B&R을 인수, 자동화 산업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였음
 - B&R은 1979년 Erwin Bernecker 와 Josef Rainer에 의해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산업 자동화 솔루션기업으로 1000명의 연구개발 엔지니어를 비롯하여 3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음
 - 또한 대한민국을 포함 70개국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2016 회계연도에 200억 달러의 기계 및 공장 자동화 시장에서 6억 달러를 넘는 매출을 올린 세계적인 기업임
 - 해당 인수합병이 ABB의 항만 크레인 및 터미널시스템 자동화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ABB의 사업분야가 산업자동화 전분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ABB 산업자동화 부문의 회장인 Peter Terwiesch 씨는 이제 ABB가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one-stop-shop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업계 선두의 ABB 기술력과 B&R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보다 확장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ABB의 CEO인 Ulrich Spiesshofer씨는 금번 인수를 통해 ABB는 계측, 제어, 구동, 로봇, 디지털화 및 전기화 등 전 자동화 산업분야에 걸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화 솔루션 공급자가 되었다고 밝힘
 - 전세계에 ABB와 B&R의 기술이 들어간 7천만대 이상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와 7만대의 제어시스템, 3백만 대 이상의 자동화 기계 및 2만 7천개 이상의 자동화 공장을 기반으로 ABB는 고객들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시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 ABB는 공장 및 생산시스템은 물론 항만장비, 물류 시스템 등의 자동화 분야에서도 선도적 기업으로 B&R 인수를 통해 보다 앞선 항만 터미널 자동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ABB는 항만장비 자동화에서 있어서도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부산신항 건설 당시 PNC, HJNC, BNCT 등의 터미널 야드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였음
 - ABB는 또한 최근 자사의 로보틱스 및 해양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선박의 안벽자동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7.4.4.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아마존, 중동의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수

- 최근 아마존은 중동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마존의 이러한 사업 확장은 아랍의 전자상거래 플랫폼(souq.com) 인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임
 - souq.com은 아랍 국가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매달 4천 5백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인수합병은 아랍국가에서 이루어진 M&A 중 가장 규모가 큰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래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함
- 아마존의 수석 부사장 Russ Grandinetti는 souq.com을 통해 중동의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의 세계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다양한 쇼핑의 경험을 선사해준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언급함
 - 아마존과 souq.com은 혁명, 기술 등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사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아마존이 중동 지역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전자상거래 쇼핑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함
 - 중동 소비자들은 souq.com 사이트를 통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Souq.com은 2005년 출범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이웃 국가인 오만, 쿠웨이트 및 이집트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인수를 계획하기 전까지 아마존은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한 전례가 없음
 - 이는 아직까지는 해당 국가의 온라인 소매 지출이 전체 소매의 2%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이번 아마존의 중동 국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수는 해당 국가의 초기 기술 분야에 있어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될 것임

자료 : www.cnbc.com, 2017.3.28.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CMA CGM, PSA와 싱가포르에 합작투자한 2단계 터미널 개장

- CMA CGM과 PSA의 싱가포르 합작투자 터미널인 CMA CGM-PSA Lion Terminal(CPLT)의 2단계가 개장되었음
 - CPLT 터미널은 2백만 TEU 이상 처리 가능한 2개 선석을 신규로 개장한 후, 연간 4백만 TEU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터미널 수용량도 두 배로 증가하였음
 - CPLT 터미널은 CMA CGM가 운영하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허브 터미널이 되었음
 -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터미널5의 4개 선석에 초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고, 올해 초부터 초대형 선박 평균 정박률은 시간당 160회 이상을 기록하였음
- 2016년 7월 CMA CGM 그룹과 PSA의 CPLT 터미널 합작투자가 발표되었고, 동년 하반기 부터 해당 터미널 개발이 시작됨
 - CMA CGM 아시아사무소 Jean-Yves Duval 수석 부회장은 CPLT 터미널 개발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의 주요 허브 항만으로 만들고자 하는 CMA CGM의 노력의 일환이며, 자사의 글로벌 전략에 싱가포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언급함
- 싱가포르 항만은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2016년 말까지 총 3,090만 TEU의 화물을 처리했음
 - 2016년 1월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하반기 처리 물동량 증가로 2016년 총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 하는 정기노선 조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싱가포르 항만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의 허브 항만이 될 전망이다

자료 : www.maritimeherald.com, 2017.3.28.

강선미 연구원
051-797-4776, sunmikang@kmi.re.kr



물류시장동향

2020년 목표 중국 수도권 내 주요 도시 택배 당일 도착 서비스 “최후 1km”(last kilometer)건설

- 향후 3년 북경, 천진, 허베이 내 주요 도시의 택배 속도를 전면적으로 높여, 주요 도시 택배의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3월 31일 “북경·천진·허베이 구역 택배 서비스 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세 구역을 황금 삼각으로 지정하고, 택배집결 밸트를 형성할 것이라고 선포함
 - 북경시 우정관리국 담당자에 따르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경, 천진, 허베이 택배 서비스 매출은 33.4%, 택배 물량 연평균 성장률은 53.3% 증가하였음
 - 2015년 북경, 천진, 허베이 택배 서비스 매출은 281.3억 위안, 업무량은 22.2억 건에 달함
- 2020년 3개 도시 택배 서비스 성장 예상 목표는 택배업무 매출이 850억 위안, 연평균성장률은 약 25%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택배 업무량은 80억 건으로 연평균 2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shippingchina.com, 2017.4.1.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UPS, 중국-유럽 간 철도서비스 확장 추진

- UPS는 중국-유럽 간 철도운송 서비스 확장을 통해 기존의 해상 및 항공운송을 비롯한 다양한 운송옵션 제공을 추진 중
 -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과 유럽 간 6개의 신규 역을 확보하였으며, 해상, 항공운송을 연계한 복합운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중국에서는 창사, 충칭, 쑤저우, 우한지역에 4개의 역이 추가되었으며,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와 독일의 뒤스부르크지역에 2개의 역이 추가됨
- 철도서비스 확장을 통해 운송시간 및 공급망 관리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UPS 관계자에 따르면 새롭게 확보한 역을 기반으로 중국-유럽 노선을 이용했던 항공화물의 65%가 철도운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해상운송 대비 운송시간의 약 40%를 절약할 수 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7.3.31.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공 고 문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주·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물류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17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 공동물류 지원사업
 - 공동물류 축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3. 참가자격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제3자물류 컨설팅 및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물류기업 참여가능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 제출기간 : 2017. 3. 6(월) ~ 4. 7(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단, 우편 제출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조사팀)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기준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6.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문의사항]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김대규 차장
(T. 02-6050-1443, E-mail : 07807@korcham.net)



글로벌 물류/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계획(안)

- ◇ 국내 물류/화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물류/투자환경 정보 및 참석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제공

■ 행사 개요

- 주최·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 일시·장소: '17. 4. 18(화) 15:00~18:00,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룸209호
- 참 가 자: 국내·외 화주기업 및 무역업체의 해외영업/기획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동남아시아물류/투자환경, 철도를 활용한 중앙아시아진출 전략

■ 세부 일정

설명회	구 분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동남아시아 물류/투자환경 설명회	입 장	1450~1500 (10)	-	사회자
	기조연설	1500~1505 (05)	-	국토교통부
	발 표	1505~1525 (20)	말레이시아 투자혜택 및 물류동향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소장
	질의응답	1525~1535 (10)	-	
	발 표	1535~1605(30)	①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유의사항 및 주요 이슈 ②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한 물류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	Wong&Partners 로펌 파트너 변호사
	질의응답	1605~1615(10)	-	
	발 표	1615~1635(20)	인도네시아 물류/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보세물류센터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 소장
	질의응답	1635~1645(10)	-	
철도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휴식시간	1645~1655(10)	-	
	발 표	1655~1715 (20)	한국 기점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합운송루트 활성화 추진 전략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질의응답	1715~1725 (10)	-	
	발 표	1725~1745(20)	카자흐스탄 물류/투자 환경과 물류인프라 개발계획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질의응답	1745~1755(10)	-	

첨부파일: 참여기관 소개 및 참가신청서



4차 산업혁명과 물류의 융·복합 세미나 개최

- ◇ 국내 대표 물류서비스 기업의 차별화된 물류서비스와 물류산업 4.0 대응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스마트 물류 신사업 육성(물류·IT 융합)과 첨단 물류기술기반을 통한 신사업 스타트업 육성 등의 미래지향적인 물류산업을 홍보
- ◇ 최신 물류스타트업 기술동향 및 정부의 물류R&D 지원 정책을 홍보

■ 행사 개요

- 주최·주관 : 한국통합물류협회
- 일시·장소 : '17. 4. 19(수) 14:00~15:40, 킨텍스 제2전시장 현장세미나룸
- 참가대상 : 국내·외 화주-물류기업 및 연구기관, 학계 등 담당자
- 주요내용 : 특화물류서비스 / 물류·IT 융합 물류서비스 / 물류 R&D 정책

■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안내	13:50 ~ 13:55 (5')		사회자
기조연설	13:55 ~ 14:00 (5')		국토부
국토교통부	14:00 ~ 14:20 (20')	2017년 미래시대를 대비한 국토물류정책	물류정책과 최용현 사무관
질의응답	14:20 ~ 14:25 (5')		
CJ대한통운	14:25 ~ 14:45 (20')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태영 부사장
질의응답	14:45 ~ 14:50 (5')		
고고뱅크 아	14:50 ~ 15:10 (20')	공유경제와 물류의 변화 (HOW THE SHARING ECONOMY IS SUPPORTING THE LOGISTICS LANDSCAPE)	남경현 대표
질의응답	15:10 ~ 15:15 (5')		
메쉬코리아	15:15 ~ 15:35 (20')	고객감동 Last 1 Mile을 챙겨라: Smart Logistics Case Study'	유정범 대표이사
질의응답	15:35 ~ 15:40 (5')		

첨부파일: 참가신청서